義를 실천해 경지에 이르는 길을 담다

불교로 읽는 古典 - ②맹자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유교 발전의 시금석 역할을 한 맹자의 진영〈사진 왼쪽〉과 중국 산둥성의 맹자의 마을과 맹자의 묘가 있는 곳.〈사진 오른쪽〉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으며, 이를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 곧 선비요 군자라고 말했다.

〈맹자(孟子)〉는 〈논어〉, 〈대학〉, 〈중용〉과 더불어 '사서(四書)'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책이다. 본디 사서라는 것은 한대나 당대에는 따로 묶어서 불리지 않았었다. 〈중용〉과 〈대학〉은 〈예기〉에 속해 있었고 독립적인 저작으로 다루어지지도 않았다.

그러던 것이 당대 말기에 새로운 유학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특히 주목을 받아 사서로 묶어지게 된 것이다. 거기에는 연유가 있다. 중국에 불교가 융성하면서 중국인, 특히 중국 유학계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다. 세계의 중심이라고 자부하는 중국에 오랑캐라 할 수 있는 인도의 종교가 들어와서 큰 세력을 형성한 것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유학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유학에서 좀 부족하였던 인간의 마음과 수양 문제를 깊이 다룬 책을 찾았고, 그 결과 사서라는 이름의 네 책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맹자〉는 불교의 영향 아래 그 가치성이 돋보이게 된 책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맹자〉라는 책의 내용을 그 저자로 알려지는 맹자의 입을 통해서 듣는 식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맹자를 말하면 바로 '성선설'이 떠오른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대표적인 학설로 순자의 성악설과 맹자의 성선설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학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맹자의 성선설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얼마쯤 알고 있을까? 사람의 본성은 선하니 내버려 두어도 저절로 선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 혹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는 맹자의 성선설에 대한 매우 잘못된 이해라 할 것이다.

맹자는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매우 적다"고 말한다. 즉 사람에게도 동물적인 성향이 지배적이고, 아주 적게나마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선한 지향성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물적인 성향이 지배적인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 작은 요소, 선한 지향성이 인간과 동물을 구별 짓는 인간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먹을 것을 찾고 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향(食色)은 동물과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이기에 그 힘이 크다고 하더라고 그것을 사람의 본성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도덕적으로 되기는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동물적인 성향의 세력이 더 크기에 자칫하면 그 쪽으로 쏠려서 사람다운 길을 포기하기 쉬운 것이 인간의 현실이다. 그러하기에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서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 짓는 그 도덕적 성향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아서, 애써 그것을 보존하고 길러야 한다.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사람다운 길을 찾아 나가는 사명감을 지닌 이가 바로 '선비'요 '군자'이다. 그 사람다운 본성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한 일반인은 어떠할까? 자기 생을 영위하기 위한 고정적인 생계수단이 위협을 받으면 삿되고 악한 짓을 가지지 않게 된다.

善의 지향성이 인간 · 동물 차이점
사람다운 길을 가려는 것이 '군자'
왕도정치의 배경엔 '성선설' 존재
불교와 맹자 사상은 같으면서 달라

한국불교, 구체적 규범 부족 이유는
종교에 머물고 현실 참여 없기 때문
구호로만 '불국토 건설'… 실천은 無

그렇지만 세력으로는 약하다 할지라도 선으로 나가는 본성이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건만 주어지면 착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것이다. 여기에 위정자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된다. 올바른 정치를 통해 적절한 생활 여건을 제공해주면 모든 백성이 선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위정자도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어, 백성이 참혹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을 지니고 있다. 그 마음을 잘 발휘하여 백성이 생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고, 적절한 교육을 베풀면, 백성의 선한 마음이 거기에 호응하여 이상적인 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맹자의 왕도정치 사상이다.

여기서 한번 인간의 본성에 대한 불교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자. 불교에서 보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한 존재일까, 아니면 선악이 결정되지 않은 존재일까? 악한 존재라고 보는 관점은 쉽게 나올 것 같지 않으니 일단 배제하기로 하자. 모든 존재는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는 점에서는 불교도 인간을 선한 본성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해도 좋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불성이라는 것은 인간 뿐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맹자와 뚜렷하게 다르다. 그리고 맹자가 선한 본성을 바탕으로 인간이 도덕적인 동물이라고 말하는 것과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맹자가 말하는 선한 본성에서는 인간의 윤리가 바로 이끌어져 나온다. '네 가지 단서가 되는 마음'(四端之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을 보면 누구나 달려가서 구하게 마련이다. 자신의 이익이나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무조건 구하러 달려가는 행위를 일으키는 마음이 있다.

그것이 인(仁)의 실마리이다.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마음은 의(義)의 실마리이다. 사양하는 마음은 예(禮)의 실마리요, 옳고 그름을 가리려는 마음의 지(智)의 실마리이다. 이렇듯 맹자의 인성론에서는 유가에서 대표적인 덕목으로 일컬어지는 인의예지(仁義禮智)가 바로 이끌어져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성에서는 어떤 덕목이 이끌어져 나오는 것일까? 불성은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완성된 모습이 지혜와 자비로 드러난다면 결국 불성은 지혜와 자비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불성을 바탕으로 지혜와 자비를 말하면서도 정작 불교는 구체적인 윤리의 규범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데로 나가지 않는 듯한 모습이 있다. 팔정도(八正道)를 말하면서 '바른' 생각이나 업이나 생계수단 등을 말하지만, 추상적인 '바름'만을 말할 뿐이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윤리 규범의 형태로 제시하는 점은 부족하다. 그런 점에서 맹자와 다르고, 나아가 유교와 크게 다르다. 그것이 인도적인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로 변명을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정착 하면서도 창조적 변화를 통해 구체적인 규범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불교 역사의 큰 결함 아니었을까? 종교와 수행의 측면에 머물러 현실에 필요한 규범의 제시에로 나가지 못하고, 그런 측면은 유교에 맡겨버린 반쪽 종교의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닐까 하는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정이(程?;송대의 유학자, 호는 伊川?程子라 불림)는 차갑고 투명한 물을 보면 마치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손을 넣어 보면 차가운 기운이 있듯이, 인간의 본성도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강상의 원리가 이미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불교는 그것을 보지 못하여 허무에 빠졌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이 올바른 것은 아닐 것이다. 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 일상을 이끌어갈 윤리가 없을 것인가? 단지 우리 불자들이 창조적인 재해석을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규범들을 끌어내지 못하였을 뿐이라 생각한다.

맹자의 수양에 관한 이론을 보면 불교와 유교의 대비가 더더욱 분명해진다. 맹자의 수양론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양성론이다. 맹자는 이 호연지기를 바르게 기르면 그 기운이 천지에 가득 차게 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대장부의 인격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호연지기은 어떻게 기르는 것일까? 높은 산이나 바다에 나가 그 자연의 기상 속에서 호연지기를 기른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맹자는 이 호연지기는 '올바른 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천함'(集義)에 의해 생긴다고 말한다. 억지로 하루아침에 키우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마음에 항상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지속하여 생기는 마음의 큰 기상이 바로 호연지기이다. 여기서 마음의 기상이라고 한 것은 바로 호연지기의 뿌리가 마음의 기운이기 때문이다.

맹자는 사람의 몸에는 '큰 몸'(大體)과 '작은 몸'(小體)가 있다 한다. 작은 몸은 육체와 그에 속하는 감관들을 말한다. 큰 몸은 바로 마음을 가리킨다. 작은 몸을 잘 기르면 '작은 사람'(小人)이 되고 큰 몸을 잘 기르면 큰 사람(大人)이 된다.

대장부란 바로 그 큰 몸을 잘 기른 사람이요, 그렇게 잘 길러진 큰 몸에서 드러나는 큰 기상이 바로 호연지기이다. 그렇다면 큰 몸을 어떻게 잘 기를 수 있을까? 작은 몸을 기르는 방법과 마찬가지이다. 작은 몸은 그에 따르는 좋아함이 있다. 먹는 것과 성적인 것 등이다. 이 작은 몸을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키면 작은 몸이 기운차게 된다.

마찬가지로 큰 몸도 그 고유의 좋아함이 있다. 그것은 바로 도덕적인 것이다. 이 큰 몸은 인간만이 가진 것이요, 하늘이 내린 귀한 몸이다. 그 몸의 도덕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이며, 맹자 성선설의 핵심인 것이다. 작은 몸을 기르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큰 몸이 좋아하는 것을 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면 큰 몸이 기운차게 된다. 바로 그렇게 기운차게 된 큰 기상이 바로 호연지기이다.

'올바른 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천함'이라는 호연지기 양성의 방법에서 우리는 맹자 수양론의 특징, 나아가 유가 수양론의 특징을 보게 된다. 공자는 자신의 학문을 ' 비근한 곳에서 배워 높은 원리에 이른다 '(下學而上達)이라는 말로 표현하였고, 맹자에서는 이것이 의로운 행위의 지속적 실천을 통한 인격완성의 이론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다산 정약용이 "불교의 마음 닦는 법은 마음 닦는 것을 일로 삼지만, 우리 유학의 마음 닦는 법은 일을 통해서 마음을 닦는 것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일을 통해서 마음을 닦는 방법이 불교에는 왜 없겠는가? 행주좌와(行住坐臥)가 모두 선(禪)이라는 말에도 이런 정신을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좀 부족한 것은 구체적인 윤리적 실천을 들기 보다는, 추상적인 마음챙김으로 나가는 것이 불교의 경향이라는 점이다. 왜 좀 현실에 필요한 구체적인 규범을 제시하고, 그것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이는 수양법이 제시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다.

지면의 한계로 맹자의 왕도사상 등은 다루지 못하지만,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개인의 완성과 더불어 이상적인 사회의 실현이라는 두 측면은 언제나 함께 말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에서도 불국토 건설이라는 구호는 있지만, 그 모습과 실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과연 있는 것일까? 있는데 우리가 애써 눈 돌리고 있는 것일까?

개인적인 수양에만 매몰되어 있고, 그것도 마음을 세상과 떼어 들여다보는 병폐에 빠져 있고, 이상적인 세계의 건설을 위한 현실적인 움직임에는 등한한 우리 불교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를 찾는 눈으로 〈맹자〉를 보았다. 자연 불교와의 유사성보다는 차이점을 강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독자의 이해를 구한다.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4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 (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39위,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강식 및 수업일시
- ■ 개 강 식 : **2014년 3월 6일 (목요일)**
-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2014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6기 수강생 모집 안내문

그동안 **제1기에서 제5기**까지 전국에서 **7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
2. **사찰에서 스님을 도와 신도 관리를 하는 총무보살**

- ◆교육기간 : **2014년 3월 초부터 6개월간**
- ◆수 강 료 : 6개월 교육 전기간 무료
- ◆개강일자 : **2014년 3월 4일(화요일) 오후 1시**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후로 자세한 안내문 보내드립니다)
- ◆책 자 : 책자는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이며, 책자대금은 별도입니다. 본회의 사주명리학 강의는 초보자라도 6개월간 교육을 마치면 누구나 적중률에서 일인자가 될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의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배우시고 나면 큰 보람을 느끼십니다.

성 지 관 음 회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
전화 : 031)768-8414~6 팩스 : 031)768-8413

제12기 불교의식 범음 범패 학인모집
실전의식 포교 전문과정 완성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사용법, 도량석, 종송, 사시마지 및 각단예불, 제반송주, 행선축원

중급과정 (6개월)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주권공, 49재의식, 지장청, 관음시식, 각종 기도법회 의식

특 별 반 (1년)
점안의식, 다비식(시다림), 낙성(상량)의식, 각종행사, 장엄 부문연구, 방생법회(수륙대재), 생전예수재 등

작 법 반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무) 등

- ◆ **개강일시** : 매주 화요일 개강
- ◆ **초 급 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3시 30분
- ◆ **중 급 반** :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 ~ 6시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염불원), 사진 2장(반명함판)
- ◆ **염불원 주소** : 경북 경주시 내남면 신을길 98-20 (구, 덕천리 618)
- ◆ **손 전 화** : 010-8612-6914

대 승 불 교 염 불 원 (대승범패원)